

『황제내경』 陰陽五行醫論에 나타난 生命觀 初探

원종실*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A Study On The Life View of The Theory of Yin Yang Wu Xing in The Nei Ching

Jong Sil Won*, Kyung Su Kum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n the Nei Ching, the interrelation of Yin and Yang within the human body, based upon a perfect balance and a perfect mutual control. The affinity of Yin and Yang to each other was held to have a decisive influence upon man's health. Perfect harmony between the two primogenial elements meant health. Disharmony or undue preponderance of one element brought disease and death. The interrelation of Yin and Yang in the Nei Ching, had the organic view of the life. The world view of the harmony and balance in Nei Ching shows a unified world view that is symmetrical and in equilibrium in unity and conflict of opposite elements instead of combining with the closely related elements, namely, it is a fact that the life principle of the theory of Yin and Yang in Nei Ching is not the object of the killing and destroying for unity and conflict of opposite elements but the life cycle and life rule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world of harmony, coexistence, and engendering via check and balance as well as confrontation between the opposite elements. In Nei Ching, like this, in the case where all of the antagonistic elements including the antagonism between You and Me, Yin and Yang affirm and tolerate each other, the organic view of the life in which the life of You and Me and the macrocosm is able to be maintained is suggested to the human being at a whole crisis.

Key words : Nei Ching(內經), Zhou Yi(周易), Yin and Yang(陰陽),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五行), Yin Yang Wu Xing(陰陽五行), The Organic View of The life(有機體的 生命觀)

서 론

중국 최고의 의학경전 『황제내경』은 『주역』을 포함한 先秦 이래의 여러 철학과 자연과학의 중요 핵심 사상을 흡수하여 형성되었다. 이런 까닭, 『내경』(이하 내경)은 비단 중의학 방면에서 中醫理論의 시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특히, 의학과 중국철학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철학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으며, 한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내경』에는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독특한 생명철학과 생명사상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

경』의 생명관은 인간과 만물 그리고 전체 우주생명을 하나로 관통하여 하나의 통일 생명체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즉, 너와 나의 대립, 음과 양의 대립, 일체의 모든 대립적 요소들이 서로를 긍정하고 포용하여 함께 더불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너의 생명이 유지되며 대우주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극히 理想的이며 有機體적 생명사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존의 극한 대립 속에서 오직 자신의 설 자리를 위해 他者と 外物과 더불어 싸워 상대를 소멸시켜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현존하는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돌이켜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생명사상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 상반적인 생명 요소인 陰陽간에 오히려 相成과 調和를 추구해야만 상실되어 가는 대우주와 소우주인 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경』 음양사상의 유기체적 생명관을 밝혀 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원종실,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 E-mail : wonheon@wonkwang.ac.kr, · Tel : 063-850-6936

· 접수 : 2004/07/19 · 수정 : 2004/08/27 · 채택 : 2004/09/23

본 론

1. 陰陽五行思想의 기원과 『내경』 陰陽五行醫論의 형성

戰國시기 제나라에서 형성된 음양학파는 『周易』에서 말한 陰陽과 『尚書·洪範』에서 언급한 五行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管子의 四時와 水地에 음양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갑골문의 기록에 의하면 오행의 개념은 殷商에서 기원하며 『尚書·洪範』에 기록이 나타난다. 『주역』에는 오행의 주요한 두 요소인 물과 불에 관한 초보적인 기술이 있으며, 오행에 관한 완전한 기록은 바로 『尚書·洪範』에서 말한 바 “五行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咸,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오행은 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水는 물이 아래로 흘러 적시고, 火는 불꽃이 위로 타오르며, 木은 나무가 구부러기도 하고 곧게 펴기도 하는 것이며, 金은 사람의 뜻을 좇아 그 본래 형상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土는 오곡을 심고 거두는 것을 말한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은 마침내 바다에 이르러 그 맛이 짜게 되고, 불꽃의 위는 태워져 쓴 맛을 내게 되고, 구부렀다 펴지는 나무는 그 열매가 모든 신맛을 내며, 형상이 바뀌어지는 금은 모두 매운 맛을 갖게 되며, 토에서 나는 오곡은 모든 단 맛을 지닌다)에서 비로소 잘 나타난다.

『내경』은 周易과 당시의 陰陽학설을 받아들이고, 陰陽의 대립과 통일이라는 관점을 한의학에 적용하여 한의학 陰陽理論을 수립하게 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于本”(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양이란 천지 대자연의 법칙이고, 만물의 綱紀이고 변화의 父母이고 생과 殺의 근본과 시작이고 神明이 있는 곳이니, 질병 치료시 반드시 이러한 근본에서 탐구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내경』은 음과 양을 천지만물의 근본적인 도이며 성장과 소멸의 근본시작으로, 질병 치료시 반드시 음양 이론을 통해 인체의 조직구조를 설명하고, 인체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를 이해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경』은 이러한 『周易』, 『左傳』, 『洪範』 등의 영향 아래 다시 五行 학설이라는 철학 개념을 한 의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五行의 원리를 장부경락 병리생리 등과 직접 상관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色爲蒼,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竅爲目, 在味爲酸, 在志爲怒”(神明은 하늘에서는 바람이요 땅에서는 나무요, 몸체에서는 筋이요 장부에서는 간이요., 색깔로는 푸른색이요, 음울에서는 角음이 되고, 소리에 있어서는 부르짖음이 되고, 움직임에서는 움켜잡는 것이 되고, 九竅에서는 눈이 되고, 맛에서는 신맛이 되고, 감정에서는 화를 내는 것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경』의 음양오행론은 天과 地 그리고 人間의 신체기관과 성격기질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통일적이며 整體적인 世界觀인 동시에 身體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내경』은 음양오행의 개념을 철저히 인간 신체에 적용시켜 인체 각 기관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사람의 성격기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른바 陰陽五態人과 五行人등의 분류는 바로 음양과 오행을 직접 인간의 기질과 결합시켜 인간의 질병을 판단하는 의학이론인 것이다.

예를 들면, 『靈樞·通天』편에서는 陰陽을 기초로 陽偏盛, 陰偏盛, 陰陽均衡 등 다섯 종류의 陰陽態人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곧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陰陽和平人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태음인인 경우에는 “太陰之人, 貪而不仁, 下齊湛湛, 好內而惡出, 心抑而不發, 不務于時, 動而後之”(태음인은 욕심이 많고 어질지 못하며, 겉으로는 겸손하고 반듯하며 고요하나, 속마음을 감추어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억눌러 표현하지 않으며, 때에 맞게 행동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남이 행동하면 뒤따라 움직인다.)라고 태음인 특유의 성격과 기질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경』은 陰陽五態人이 나타내는 陰陽의 多少와 調和상태를 근거로 질병 치료의 개별적 차이를 주장하였다. 『靈樞·通天』에서는 말하기를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澁,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瀉, 不能移之.”(태음인은 음이 많으나 양이 적고, 음혈이 탁하며, 위기가 백백하여 잘 활동하지 못하고,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여, 筋이 이완되고 피부는 두꺼워서, 침으로 빨리 기혈을 원활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병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태음인인 경우 陰이 많고 陽이 적어 질병이 나타나며, 반대로 太陽人인 경우 양이 많은 반면 음이 적어 질병에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신체의 최적의 상태는 음과 양의 가장 적절한 조화와 균형 유지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素問·三部九候論』에서 말하기를 “必先度其形之肥瘦, 以調其氣之虛實, 實者瀉之, 虛者補之”(반드시 먼저 환자 체형이 말랐는지 살찐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 환자 기의 허실을 조절해야 하는데, 邪氣가 지나친 것은 瀉해 주고, 정기가 부족한 것은 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간에 지나치게 성한 것은 약화시켜 주고, 부족한 것은 반드시 보충하여 음양균형 상태로 이끌어 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음과 양의 절대적인 조화와 균형만이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 존속할 수 있다는 陰陽平衡사상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내경』 陰陽五行醫論의 극히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는 바로 음양오행간의 相互關係論으로 음양간 혹은 오행간에 절대적,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견제와 균형과 조화의 생명원리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이론은 바로 음양오행과 인간 신체 장부 그리고 인간의 성격 및 외형을 하나로 결합시켜 이해한 陰陽五行氣質說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내경』의 陰陽五行氣質說이란 周易의 八卦氣質說을 기초로 『내경』 특유의 陰陽五行氣質論을 정립한 것인데, 醫理, 醫法, 醫方, 醫藥이론을 관통하는 통일적이고 총체적인 음양의학이론을 성립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周易』의 八卦氣質說은 인간을 氣質에 따라 분류한 세계 최초의 가장 과학적인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²⁾, 이는 곧 陰陽과 五行을 극히 이상적인

1) 『甲乙經』 권1 제16에 근거 心抑으로 기록하였다.

2) 見楊力『周易與中醫』, 제15장『周易八卦人氣質探秘』, 제1절, p110.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년. 그는 말하기를 “周易蘊藏着的氣質分類是世界最早, 最科學的分類法. 是內經氣質分類的胎始. 是心質和體質

로 배합시킨 陰陽五行의 기질분류법이다. 이는 우주만물의 속성을 인간에게 적용시켜 인간의 기질을 이해한 것으로 物理속성과 人間품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해한 세계관인 것이다.

『내경』의 陰陽五行氣質論은 바로 周易과 마찬가지로 心理와 體質의 통일, 그리고 陰陽 및 五行을 氣質 분류의 이론기초로 삼는 것인데, 『靈樞·陰陽二十五人』 및 『靈樞·通天』 편 등에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火, 金, 木, 土, 水를 분류의 기초로 삼아 인간의 체질을 火人, 金人, 木人, 土人, 水人 등 五型人으로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木型之人...其爲人,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身, 小手足, 好有才, 勞心少力, 多憂勞于事, 能春夏, 不能秋冬, 感而病生.” (木人은 외모로는 얼굴이 푸르며, 머리가 작고, 얼굴이 길고, 어깨와 등이 크며, 목이 곧고, 손발이 작으며, 재주가 있으며, 성격은 노심초사하고 힘이 적으며, 매사에 근심이 많고, 봄과 여름은 잘 견디나 가을과 겨울에는 잘 견디지 못하여 邪氣를 감수하면 질병이 생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바로 五行속성-신체외모-성격을 하나로 관통시켜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宇宙五行과 身體五行을 하나로 합일시킨 『내경』 특유의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五行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체에 적용된 陰陽五行 원리는 중의학 전체를 관통하는 극히 중요한 의학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비록 원래의 五行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철학과 자연과학을 접목시켜 『내경』 특유의 매우 理想적인 生命觀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2. 『易傳』 陰陽사상과 『內經』 陰陽 사상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중의 陰陽醫論 사상은 춘추전국의 음양철학이나 혹은 주역의 음양사상에 그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과 또한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 중의 음양론이라 하겠다.

먼저, 춘추전국시대에 음양가들에 의해 형성된 음양학설의 특징은 주로 우주관으로 자연을 중심 의제로 삼았다. 또한 易傳에 이르러서는 음양개념을 인간의 사회생활에 적용 발전시켰다. 즉 소위 陰陽철학의 음양 개념과 易傳의 음양 개념은 바로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 생활에 대한 추상적인 哲理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음양은 대개 自然의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陰陽과 萬物을 일대일로 대응 적용시켜 이해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인체에 대한 적용은 극히 적게 나타난다. 楊學鵬 역시 그의 저서 『陰陽五行』에서 “易傳의 저자는 음양을 핵심으로 하는 완정한 철학체계를 제창하였다. 음양학설은 자연에 편중되었는데, 易傳은 자연과 사회 두 방면의 보편적인 규율을 포괄하고 있다.”³⁾라고 말하였다. 양학봉은 또 易傳 이전의 음양학설은 대개 자연에 편중하였는데, 易傳은 곧 易經으로부터 天道와 地道와 人道, 즉 자연과 사회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자연철학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하였다.⁴⁾

이러한 음양사상은 『내경』에 이르러 다시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곧 방대한 의론과 醫哲學의 중

합서인 『내경』 역시 천문과 기상 혹은 지리 등 다양한 음양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음양 개념이 모두 바로 인간 신체와 생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그 직접적 목적을 두고 응용되어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내경』의 음양 개념은 자연철학과 사회철학의 결합에서 더 진일보하여 인간 생명 자체에 음양을 적용하여 天地人을 관통시킨 통일적이며 총체적인 음양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경』은 자연적 사회적 의미의 음양개념에서 더 나아가 인간생명 및 인간 신체연구에 음양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것이 곧 『내경』의 陰陽醫論 사상과 周易을 포함한 이전 陰陽철학과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경』에 이르러 음과 양의 개념이 직접 인체의 장부에 적용되면서,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음양의 상호관계론을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내경』에서 나타내는 음양의 상호관계론은 바로 인간사회의 相生과 共存 그리고 相成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극히 根源의이면서 理想의인 생명원리와 생명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3. 『內經』 陰陽五行醫論에 나타난 生命思想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경』의 음양오행론에 나타나는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생명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는 和平과 共存의 생명사상을 들 수가 있다. 『내경』의 음양사상이 周易에서 깊은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실제 『내경』은 周易의 음양오행철학에서 추구하는 세계관과 생명사상의 영향을 깊이 흡수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易·說卦』에서는 말하기를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산과 물은 비록 형체를 달리 하지만 근원생명력인 氣에서 통하며, 천둥과 바람은 각기 활동하나 서로 가까이 하며, 물과 불은 서로 침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또한 말하기를 “水火不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⁵⁾(물과 불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며, 천둥과 바람이 서로 패역하지 않으며, 산과 물이 하나의 근원생명력인 氣에서 통한다)라고 하였다. 즉 우주자연계나 인간은 비록 서로 품성은 다르나 서로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속성이 서로 완전히 반대인 인간 혹은 물질간의 관계일지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통일체 안에서 서로 융합하며 살아 갈 수 있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곧 『내경』에서 더욱 계승 발전되어져 음양간 혹은 오행간의 相成과 共存의 유기체적인 상호관계론을 정립하게 된다.⁶⁾ 곧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만물, 혹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신체 각 기관의 상호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립해주는 극히 핵심적인 『내경』의 생명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바

5) 李學勤主編 『周易正義』의 주해 내용에 따르면, “水火不相逮, 雷風不相悖,”에 대해서는 水火相逮와 水火不相逮의 두 가지 설이 있는데, 石經, 岳本, 閩, 監, 毛本은 동일하게 “水火不相逮”로 기록하였고, 『經典釋文』에는 “水火不相逮”로 기록되어 있는데, 鄭, 宋, 陸, 王肅, 王廙에는 “不”자가 없다고 한다. 周易兼義卷第九, p329 註解2, 北京大學出版社, 저자는 『經典釋文』의 설을 좇아 “水火不相逮”로 기록하였다. 1999.

6) 『內經』 陰陽醫論에 나타난 유기체적인 陰陽相互關係論에 대해서는 후일 저자가 다시 상세하게 발표하고자 한다.

合一의 樞樞, 亦是陰陽與五行相結合的典範”라고 하였다.

3. 引自楊學鵬 『陰陽五行』, p25, 科學出版社, 1998.

4) 參見楊學鵬 『陰陽五行』, p26, 科學出版社, 1998.

로, 서로 다르거나 혹은 반대되며 대립적인 요소와 속성을 가진 우주계의 모든 단물이 개체 상호간에 서로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和平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周易』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世界觀이요, 동시에 『내경』이 추구하는 우주만물과 신체에 대한 生命觀인 것이다.

둘째로는, 整體적인 하나의 生命體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생명사상을 들 수 있다. 『내경』은 우주 만물은 물론이요 인체의 거의 모든 요소를 음과 양이라는 상호 대립적인 요소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단지 외형적인 대립관계를 설명할 뿐이요, 실제로는 이러한 음과 양의 상반적인 속성이 생명기능의 양대 파트너로서 존립하며, 이러한 음양이 어우러져 바로 相生과 共存의 이상을 이루어내는 극히 有機體적이며 整體적인 생명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만물의 양대 구성 요소인 음양의 대립 요소는 최고의 상생 파트너이며 佳偶인 것이다. 음과 양은 화평과 공존의 통일체의 세계를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서 우주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음양의 목적은 바로 대립과 배척에 있는 것이 아니며 조화와 균형과 統一 生命體의 건립에 있는 것이다. 인체의 모든 장부와 장기는 음 혹은 양적인 속성을 갖으며 동일한 統一 生命體의 건립과 운행에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과 양의 대립적인 요소가 통일체 생명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조건은 바로 균형과 조화인 것이다. 음이 조금 더 강해도, 혹은 양이 조금 더 강해져도 통일체인 생명은 부조화를 이루며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전체 우주의 생명력도 함께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내경』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生命境界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상호 대립요소인 陰과 陽의 철저한 均衡과 調和를 통해 소우주인 인간 생명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전체 생명인 대우주의 生命을 보존하고 운행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均衡과 調和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생명사상이다. 『내경』음양의 平衡思想은 주로 『주역』의 陰陽平衡觀에서 비롯되었으며, 『내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음양간 균형과 조화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음양상호관계론을 정립하게 된다. 『易·繫辭下』에서 말하기를 “陰陽合德而剛柔有體”(음양의 덕이 화합해야하며,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서로 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易·乾卦象』에서는 말하기를 “保合大和, 乃利貞”(대립된 속성을 지닌 음양간의 대화합을 보전하는 것이, 곧 만물이 자신의 속성과 생명을 얻는데 이롭게 한다.)이라 하여 음양의 調和와 大和合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대화합의 주역의 세계관은 바로 『내경』의 질병관에서 그대로 발현되어진다. 즉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하기를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 故陽強不能密陰氣乃絕, 陰平陽密, 精神乃治”(음양이 서로 조화하는 이치의 핵심은, 바로 양기를 잘 보존되어 견고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음양이 조화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사계절에 봄만 있고 가을은 없는 것과 같고, 또한 겨울만 있고 여름이 없는 것과 같은 不調和가 됩니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음양을 조화롭게 하였으니 이를 일컬어 성인의 법도라고 합니다. 양이 강하되 견고하게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면 음기가 끊어

져 버리게 됩니다. 음이 안정되고 양이 견고해야 비로소 精과 神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즉 陰陽의 절대적인 조화가 우주 모든 生命의 法度요 法則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음과 양이 절대적인 和合과 調和의 관계를 이룰 때에 비로소 질병이 다스려지고, 음양의 조화가 깨어진 즉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和는 바로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우주인 인간의 신체는 대우주와 마찬가지로 바로 철저한 음과 양의 상호 대립되는 요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調和가 이루어지며 그 생명이 유지되고 운행한다는 생명관이다.⁷⁾

이에 관해, 『素問·氣交變大論』에서 또 말하기를 “五運之政, 猶權衡也, 高者抑之, 下者舉之.”(五運의 변화는 마치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 높은 것은 억누르고 낮은 것은 북돋아 준다)라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또 “謹察陰陽所在而調之, 以平爲期”(삼가 음양의 상태를 잘 살펴서 양자를 조화시키되, 음양의 평형 상태를 그 목표로 삼는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곧 陰과 陽을 살펴 지나친 것은 억제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조화와 평형을 이루는 것이 治病이요 양생임을 거듭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경』의 이른바 “權衡”과 “平衡”은 바로 陰陽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 관계의 유지가 통일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治法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내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소우주 혹은 대우주의 생명관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내경』의 陰陽五行醫論에서 보여주는 조화와 균형의 세계관은 결코 근접한 속성을 지닌 친화적 요소간의 결합이 아닌, 상호 상반되거나 현저히 다른 속성을 지닌 요소간에 견제와 평형 유지를 통해 동일한 생명을 추구하는 統一體의 세계관이다. 즉 『내경』의 陰과 陽은 결코 서로 다른 상대에 대한 相殺과 共滅을 목적으로 하는 배척적 관계가 아니요, 오히려 양자간의 대립과 견제 그리고 균형 과정을 통해 최고의 相生과 調和와 相成의 세계를 이룩해 나가는 양대 절대필수의 생명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陰陽간의 對立과 相成이라는 유기체적 생명관은 철저하게 자신을 포함하여 他者와 外物에 대한 긍정과 포용을 요구하며, 너와 나, 음과 양 모두가 하나의 전체 우주생명을 구성하는 절대필수의 부분 요소라고 인식할 때에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천지간 모든 생명체의 必需的인 기본 구성 요소는 바로 相反의 속성을 지닌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상반적 요소간에 절대적인 均衡과 調和를 이룰 때에 비로소 음과 양이 속한 동일 생명체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으며, 만일 음양간 어느 한 요소가 혹 약화되었거나 소멸되어 調和가 깨어진 경우 이는 곧 공동생명체의 전체생명의 상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내경』의 이러한 음양

7) 參見楊力 『周易與中醫學』, 제22장, 제일철-제삼철, p179-183, 北京科學技術出版社, 여기에는 주역과 중의철학에 나타난 整體사상과 平衡觀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 1991.

세계관이야말로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할 유기체적 生命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王冰 『素問王冰注』, 四部叢刊影印本
2. 張志聰 『靈樞集注』, 康熙壬子刻本
3.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일중사, 1992.
4. 陳璧璠 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63.
5. 洪元植校譯 『黃帝內經靈樞直譯』, 전통문화연구회, 1991.
6.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여강출판사, 2003.
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금성인쇄사, 2001.
8. 嚴世芸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9.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
10. 鄒學喜、鄒成永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
11. 何少初 『古代名醫解周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12. 朱伯崑 『易學哲學史』(上中), 北京大學出版社, 1988.
13. 朱伯崑主編 『易學』, 九州出版社, 2002.
14. 李學勤主編 『周易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15. 徐志銳 『周易大傳新注』, 齊魯書社 1989.
16. 黃壽祺、張善文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90.
17. 陳鼓應、趙建偉 『周易注譯與研究』, 臺灣商務印書館, 1999.
18. 陳鼓應 『易傳與道家思想』, 三聯書店, 1996.
19. 楊學鵬 『陰陽五行』, 科學出版社, 1998.